

음악교육 관점에서 본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방향*

김 미 숙**

이 연구의 목적은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핵심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음악교육의 관점에서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방향설정을 위해서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하는 음악교육 관계자 - 음악교육과 교수, 음악교사, 예술강사-들에게 FGI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교육의 관점에서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구체적인 운영과 실행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음악교사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학교 문화예술교육은 정규 교과와 비교과가 균형감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 주제어: 문화예술교육, 음악교육, 학교 문화예술교육

차 례

- I. 서론
- II. 음악교육에서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 1.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이해
 - 2. 음악의 역할과 가치
- III. 연구방법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1. 음악교육에서의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의미
 - 2. 음악교육에서의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적용
 - 3. 음악교육에서의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방안
 - 4. 논의
- V. 결론

* 이 논문은 상명대학교 2018학년도 교내선발과제 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부교수

I. 서론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21세기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6개 핵심역량에 중점을 두고 교육내용을 구성하였다. 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은 정규 교과과정 내의 음악수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문화예술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은 학생들의 미적 감성 개발, 창의성 증진, 공감 및 소통능력 향상 등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핵심역량 개발과 관계가 깊다. 또한 사회적인 분위기에서도 문화예술교육의 문화적, 사회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그러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수록 문화예술교육의 목적과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미흡하다. 예술교육과 문화교육을 합친 것이 문화예술교육인지 문화, 예술, 교육, 이 세 분야가 각기 무슨 역할을 하는지 등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개념도 명확하게 정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술장르 간 통합교육, 타 분야와의 융합교육 등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다각화 요구의 미명하에 음악의 위치와 역할을 축소시키고 있다.

학교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연구는 2005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문화관광부의 주도로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다(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 2004). 특히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된 2005년부터 이 기관의 주도로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및 학술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져왔으며(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06) 최근까지 매년 연구보고서가 발표되고 있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3, 2016, 2018).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외에도 교육청(광주광역시)이나 관련 기관(인천문화재단,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도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김성국, 김동현, 박정환, 정희자, 2010; 김정희, 2008; 인천문화재단, 2007; 정수기, 이병곤, 박주만, 김옥인, 유수민, 김형태, 2015).

문화예술 관련 학자들의 연구는 다양한 학술지에서 발표되었는데 대부분이 일반적이고 전체 문화예술을 포함하는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이었으며(김성룡, 2010; 김성봉, 2006; 김숙정, 2009; 김정희, 이주연, 이지연, 2013; 김종구, 2006; 박신자, 2010; 박은영, 2006; 황정현, 2010), 프랑스나 영국의 문화예술교육 사례를 통한 방향성 제시에 대한 내용이었다(조희연, 2011; 최보연, 김병주, 2013). 그 외에도 문화예술교육사의 역량과 창의성에 관한 연구(강성룡, 이경화, 2012),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관한 연구(김영순, 전영은, 2011), 학교 문화

예술교육의 필요성(김정희, 2006)이나 효과성(박소연, 박용호, 2016)에 관한 연구,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박소연, 홍성만, 임채홍, 2011; 백경미, 2015)들이 발표되었다.

모든 문화예술 분야를 포함하지 않고 음악에만 초점을 맞춘 연구도 다수 있었는데 대부분이 문화예술교육의 현황에 대한 연구(민경훈, 2013; 석문주, 권덕원, 오지향, 2010; 태진미, 2010)이거나 외국의 문화예술교육 현황이나 사례에 대한 연구이었다(정주연, 신지혜, 2017;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8). 학교 문화예술교육에 대비한 음악교과의 정체성을 고찰한 연구도 수행되었다(윤성원, 2010; 장기범, 2010).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 기조에 따른 통합교육과 융합교육에 대한 연구도 다각도로 시도되고 있다(박신자, 2010; 전두리, 2016).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현황 및 분석 연구나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많이 제시되었지만 통합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학교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각도로 심층적으로 연구되어 왔지만 실제로 음악교육에만 초점이 맞춰진 연구는 많지 않고 특히 음악교육 관련자들의 생각과 의견을 반영한 심층적인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학교 문화예술교육 관련 현장에서 실제로 수업을 하는 예술강사나 문화예술교육사와 예술강사를 배출하는 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 학교 문화예술교육 담당 음악교사 등 직접적인 음악교육 관계자들에게 집중면담을 통해서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이나 과제, 경험을 통한 방향성 제시 등의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문화예술교육은 어느 특정 교과목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교과목 형태로 교육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음악교육의 본질적 가치와 정체성에 입각한 문화예술교육을 하기 위해서 음악교육의 관점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의 방향 설정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목적은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핵심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음악교육의 관점에서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론적 배경으로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정의와 종류, 정책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문헌연구를 통해서 음악교육의 본질적 가치와 정체성, 목표를 규명하며, 전문가와의 심층면담(Focus Group Interview: FGI)을 통해서 방향 설정을 위한 실천적 음악교육의 내용을 도출하고자 한다. FGI 질문 문항을 완성하기 위해서 음악의 역할, 가치, 의미 등을 참고문헌을 토대로 정리하며 음악교육의 관점에서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음악교육 관계자들에게 FGI를 실시하고 그들의 생각과 의견을 심도 있게 이끌어 내고자 한다.

Ⅱ. 음악교육에서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1.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이해

1)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발전 과정

문화예술교육은 예술교육을 수단으로 활용해서, 기존의 예술교육이 지향하는 미적 감수성이나 정서 함양, 창의성 육성을 넘어 궁극적으로 문화교육이 지향하는 바인 국민 개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다(한국예술교육학회, 2017, 11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는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이해 및 체험중심교육과 자발적 학습유도 교육인 초등학교 교육, 전문예술교육 및 일반 예술교육인 중등학교 교육으로 구성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의 주도로 시작된 학교 문화예술교육은 2003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다양한 정책과 활성화 방안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 <표 1>은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의 발전 과정을 비전과 함께 제시한 것이다.

<표 1>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연도	활성화 방안	
2003	비전	지역사회 문화 기반 시설과 학교 간 연계 체계구축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추진 계획
	방안	1. 다양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학교 문화예술과 효과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 2. 예술가, 예술단체, 문화예술기반 시설 지원
2008	비전	창의적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1. 업무 협약 체결 2.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확대, 성장
2010	비전	창의성과 인성함양을 위한 초·중·등 예술교육 활성화 기본 방안
	방안	1. 교과에서의 예술교육 강화 2. 예술체육 중점학교 활성화 3. 예술 심화 교육지원 확대 4.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예술교육 강화 5. 지원 협력 체계 구축

연도	활성화 방안	
2018	비전	예술적 감수성과 조화로운 인성을 갖춘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2018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방안	1. 학교예술교육 내실화 2. 학생들의 예술 활동 기회 확대 3.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예술교육 4. 학교예술교육 지원 체계 구축

<표 1>에서와 같이 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의 강화나 내실화, 예술 활동 기회 확대, 지역사회 연계, 지원 체계 구축 등은 정부가 학교 문화예술교육 계획을 수립한 이래로 변함없이 강조하고 있는 사항이다.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개념은 국가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대다수의 국가는 표준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문화예술교육의 개념을 창의력 사고로서 교육, 의사소통으로서 교육, 예술 지식의 이해와 활용,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 예술을 이용한 통합적 교육, 예술에 대한 소통, 다양한 학습경험과 창작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한국예술교육학회, 2017, 39).

2)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분류

학교 문화예술교육은 예술교과군내 문화예술교육, 창의적 특색 활동과 문화예술교육, 동아리활동과 문화예술교육, 자유학기제와 문화예술교육, 방과후학교와 문화예술교육,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외부 지원사업으로 나누어 실시 운영되고 있다.

예술교과군 내 문화예술교육은 정규 교육과정 상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 기준에 따르면 예술교과는 초등학교 주당 4시수, 중학교 2.7시수, 고등학교 0.8 - 1.7 시수로 예술교과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융합수업은 초등학교 급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초등, 중등, 고등의 순서로 많이 이루어진다. 학교 문화예술교육은 정규 교과군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보다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 많은 편이다.

창의적 특색 활동의 문화예술교육은 '1인 1악기'와 같은 특색 사업을 말하는데, 학년과 학급, 지역의 규모가 클수록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도서지역은 음악과 미술 분야에서 운영률이 특히 낮고, 융합교육은 광역시에서 더 많이 시도되고 있다. 혁신학교일수록, 국공립학교일수록 특색 활동을 적극적으로 운영한다.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동아리는 창체 동아리, 토요동아리, 자율동아리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다. 동아리는 학교마다 자율성이 높은 편으로 학교마다 운영 및 편성되는 방식이 다르다. 학교급이 높을수록 대중음악에 대한 선호가 높다. 문화예술 동아리는 상승 및 유지되는 추세인데, 지원사업이 있는 학교와 혁신학교에서 보다 활발하다.

자유학기제 안에서 문화예술교육과 방과후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은 특정 영역과 수업에 치우치기 보다는 비교적 다양한 예술 활동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외부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청, 교육부 순서의 규모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표적 지원사업으로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들 수 있다. 외부 지원 사업은 사립보다는 국공립학교에서, 학교와 지역의 규모가 큰 경우 지원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외부 지원 사업으로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 사업, 예술꽃 새싹학교 지원 사업,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문화가 있는 날, 고3 수험생 대상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 등이 있다.

2. 음악의 역할과 가치

음악의 역할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면서 인간의 정신과 영혼을 교육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으며 음악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인간의 성격 형성과 심성 계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도덕적, 윤리적인 면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왔다. 개인과 사회, 문화의 이상적 가치와 메시지를 전달하고 표현하는 상징적 역할을 다양한 교과목 중에서 음악이 표방하고 있다. 음악교육의 목적은 인간의 음악미적 감수성을 최대로 발전시킴으로써 개개인으로 하여금 음악 예술을 통한 자아성취를 이룩할 수 있도록 이끄는 데 있다.

음악교육의 관점에서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논함에 있어 일반적인 문화예술교육의 목적도 살펴보아야 한다. 문화예술교육의 목적은 그 교육대상의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한데 개인역량 발달과 교육의 질 향상, 표현 촉진 등 음악교육의 목적과 맥락을 같이 하며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한국예술교육학회, 2017, 39-41).

개인의 심미적 가능성을 최대한 확장하고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하여 음악성과 창의성을 기르며, 음악적 정서를 풍부하게 하는 것이 음악교육의 목표이며, 음악 활동이 개개인이 지니는 인간적인 속성과 인간의 삶의 특성, 음악의 본질과 가치,

사회적 기능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가치있는 것이라는 음악교육의 가치는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일맥상통하고 있다(윤성원, 2010, 2, 재인용).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의미는 예술적 기술, 지식과 이해, 비판적 감상(미적 판단), 문화적 유산(민족의 정체성), 개인의 표현력/창의성 발달, 문화적 다양성, 사회적 기술/팀워크/협동심, 긍정적 정서경험/의사소통 기술 발달, 예술의 다양성 이해, 평생교육, 예술의 잠재력 확인 등으로 27개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보고서 결과(Arts and Cultural Education at School in Europe, 2009)에 제시되어 있다(한국예술교육학회, 2017, 43-45, 재인용).

인간 본성인 미적 욕구 만족을 통해서 인간 최상의 내적 만족을 경험하게 하며 창의성 발달에 따른 창조적 표현 욕구를 충족하여 인간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적 유산으로서 음악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데 음악교육이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III. 연구방법

FGI 질문내용을 추출하기 위해서 2장에서 문헌연구를 통하여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의미와 정책, 종류 등을 살펴보았다. 음악교육의 관점에서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음악의 역할과 목적, 가치 등을 참고하여 질문 문항을 완성하였다.

이 연구는 학교 문화예술교육에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음악교육과 교수, 음악교사, 예술강사 등을 상대로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고자 하는 기초 조사이므로 개방적 의견 수집을 위하여 2018년 6월부터 7월까지 FGI를 실시하였다. 음악교육이 학교 문화예술교육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한 음악과 핵심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문화예술 전반의 관점이 아닌 음악교육적 관점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하는지, 음악의 역할과 가치, 의미는 어떠한지, 방향설정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은 무엇인지, 실천과제는 무엇인지 등의 음악교육적 내용을 포괄적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FGI 실시를 위해서 음악교육 관계자들을 그룹별로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 그룹은 대학 교수 그룹으로 현재 대학에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음악교육과 교수 5명을 선정하였다. 두 번째 그룹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지도하고 있는 음악교사 5

명으로 경력 5년 이상의 음악 교과를 담당하는 실무자이며, 특히 초등학교 교사는 음악교육학 석사 학위 소지자로 선정하였다. 세 번째 그룹은 실제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 수업을 하고 있는 경력 5년 이상의 예술강사 5명으로 선정하여 FGI 실시 인원은 총 15명으로 구성하였다. FGI 참여자 정보와 실시 일시는 <표 2>와 같다.

<표 2> FGI 참여자 그룹과 실시 일시

	교수 그룹	교사 그룹	강사 그룹
참여자 정보	음악교육과 교수(5명)	초등교사(2명) 중등교사(2명) 고등교사(1명)	예술강사(5명)
실시일시	2018년 6월	2018년 7월	2018년 6월

이 연구는 학교 문화예술교육과 관련이 있는 음악교육 관계자들, 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음악교육과 교수들, 초등, 중등, 고등학교 현장에서 지도하는 음악교사들, 실제로 학교 문화예술교육 수업을 하고 있는 예술강사 등의 경험을 토대로 음악교육의 관점에서 본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에 대한 견해를 탐색하는 것이다. FGI는 특정 집단의 참여자들이 집중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공통적인 주제와 관심사에 대한 생각, 경험, 의미, 가치 등을 서로 나누며 이해와 상호작용으로 의견을 모으고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집단 그룹에 참여한 토론자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들을 자유롭게 얘기하며 다른 토론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입장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새로운 시각으로 자신의 경험을 돌아볼 수 있어서 다양한 관점과 시각으로 연구주제를 정리할 수 있다.

FGI 질문 문항은 음악교육 관점에서 보는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에 대한 음악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을 알아보는 내용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음악교육에서의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의미와 적용, 활성화 방안으로 질문내용을 구성하였고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총 10문항으로 상세화 하였다. 문항 1, 2, 3은 음악의 역할과 가치, 의미 등을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목적과 연계해서 질문하였다. FGI 참여자들의 원활한 토론 진행과 생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문항 1은 문화예술교육의 목적을, 문항 2는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문항 3은 문화예술교육의 개념 등 2장에서 고찰한 내용을 문항과 함께 제시하였다. 문항 4, 5,

6은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정책과 운영 사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문항 7은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교사교육에 관한 것이고, 문항 8은 음악교사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내용이며, 문항 9는 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음악수업에 관한 질문이고, 문항 10은 평가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표 3> FGI문항

항목	질문내용
음악교육에서의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의미	1. 학교 문화예술교육에서의 음악의 역할과 목적은 무엇인가?
	2.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중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그 이유는?
	3. 음악교육의 관점에서 본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의미는 무엇인가?
음악교육에서의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적용	4.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학교급별, 학교 특성별, 지역별로 균형있게 실시되고 있는가?
	5. 지속적인 예산 지원 없이 학교 문화예술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가?
	6. 학교 문화예술교육이 향후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음악교육에서의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방안	7.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지도하기 위해 예비 교사 양성 과정에서의 교사교육과 현직 교사 연수 과정에서의 교사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8. 음악교사에게 학교 문화예술교육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구축해야 하는 협력 체계 및 정보 공유 커뮤니티가 생성되어 있는가?
	9.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핵심역량 개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음악수업이 되어야 하는가?
	10. 음악교육의 관점에서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음악교육에서의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의미

학교 문화예술교육에서의 음악의 역할과 음악교육의 목적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면담자들은 인성적 태도 변화, 음악의 생활화, 긍정적인 성취경험 등으로 대답하였다. 특히 교사 그룹에서는 음악을 통한 인성교육을 강조하였고, 예술강사 그룹에서는 학생들의 성취감을 중요하게 답하였다.

“인성적으로 태도의 변화를 위한 역할을 음악이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A교수)

“누구나 삶속에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음악의 소비자, 예술의 소비자를 양성한다는 목적에서 학교 보통교육으로서 음악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C교수)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불만, 불안 등을 해소 시켜야 행복한 삶을 살아가갈 수 있습니다.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통해서 오는 성취감과 자신감 등이 학생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자기표현이 학생들에게 익숙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과 인성교육의 논의를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A교사)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에서는 평생교육, 예술적 기술과 지식의 이해, 긍정적 정서경험, 예술적 잠재력 확인이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특히 4명의 예술강사가 예술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게 되고 평생 동안 예술활동에 참여하거나 향유하는 평생교육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언급하였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통해 누구나, 언제든지, 어디서나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바탕으로 학교 문화예술교육까지도 중요한 가치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평생교육의 가치를 선택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선택적 학습이 학습 효과가 높고 그것을 향유했을 때 흥미와 즐거움을 유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생을 그것을 통해서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교육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면에서 학교 문화예술교육이라는 것은 평생교육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연결점을 미리 교육으로써 연결해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A강사)

음악교육의 관점에서 본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의미는 다양한 경험으로 인한 예술적인 상상력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데에 있다. 교사 그룹에서는 심미적 음악교육을 통해서 표현력 증진과 다른 예술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교수 그룹에서도 음악 외적인 요소들을 강조하였다.

“학교 안에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B교사)

“학교 문화예술교육에서의 음악은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고 ‘미’를 배우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B강사)

“음악을 바탕으로 문화와 예술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음악적 행위나 작품을 통하여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또한 합창이나 합주수업과 같은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협력적 상호작용 기능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C교사)

“문화예술교육을 강조하면서 음악 외적인 것들이 더 강조가 많이 되잖아요... 공동체 교육이라든지... 범교과적인 것들...”(C 교수)

2. 음악교육에서의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적용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과 부정적인 답변이 고르게 언급되었다. 면담자 모든 그룹에서 정책의 취지와 시도는 좋으나 지속적인 예산지원과 강사수급, 지역별 불균형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학교 문화예술교육은 음악교과수업 이외에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에서나 사회에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들인 것 같아요.”(B교수)

“학교수업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못하는 실기에 대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것이...”(D교수)

“예술적 잠재력 확인도 중요한 가치인데, 예술꽃 씨앗학교의 프로그램에서 어떤 학생이 악기연주를 하게 되면서 자신의 예술적 잠재력을 확인하고 악기연주를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으며, 지속적인 학습으로 인해 악기 전공까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학생들의 잠재력을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교육인 것 같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작품을 소외된 이웃과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며 학생들과 지역사회와의 관계와 더불어 학생들의 성취감을 통해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D강사)

“그러나, 정책 시행에 있어서 이러한 좋은 효과가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경향도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교사 중심적이거나 편향적인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자체에 공정성과 형평성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C교사)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지역별로, 학교 특성별로 불균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유혁신 교육구를 주창하는 경기도의 경우 학교 시험을 축소하고 교육과정에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수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학생 수가 적은 지방 학교의 경우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교사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지속해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입니다.”(B교사)

정책의 지속성과 관련하여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운영 사례에서는 교사의 전문성에 한계가 있어 모든 학생들이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였다. 또한 경제적인 독립성이 희박하다고 안타까움을 교수 그룹에서는 피력하였다.

“교사가 몇 년마다 바뀌는 공립학교인 경우에는 어렵다는... 지속적인 예산 없이 지금 갈 수 있느냐 했을 때는 현재는 여기는 물음표라는 거죠”(C교수)

“몇 천 만원 들어서 악기 사 놓고 그 교사 떠나면 창고에 넣어놓고... 교사가 전문적으로 그것을 담당해서 끝까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E교수)

그러나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교사 그룹에서 대부분 음악적 경험 유무가 학생들의 행복감, 정서적 안정감 및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학창시절에 다양한 기회를 통해 공연장에 방문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공연장을 다시 방문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어렸을 때의 문화 콘텐츠에 대한 소비 유무와 그 규모가 성인이 되었을 때의 문화 소비 경험에 유의미하게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E교사)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몰입도와 즐길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 학습 능력도 함께 향상될 수 있습니다.”(D교사)

3. 음악교육에서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을 위한 교사교육에 대한 질문에서는 교사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예비교사교육과 예술강사 교육뿐만 아니라 현직교사의 재교육을 위한 연수과정의 중요성도 언급하였다. 또한 교수 그룹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도 피력하였다.

“예비교사 교육에서도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것들이 조금 포함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C교수)

“현장에 있는 정교사가 예술강사들로부터 그 역할을 어느 정도 넘겨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재교육 문제이고... 예술강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국가의 어떤 교원 양성체계 속에 편입시키는 것이 가장 정답이 아닐까”(D교수)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협력 체계 및 정보 공유 커뮤니티에 대한 질문에서는 모든 그룹에서 음악교사 커뮤니티를 생성하고 예술강사와 정부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음악교육 관련자들의 정보창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른 분야의 음악과 악기들에 대해서는 본인의 전공악기와는 다르게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다른 악기 전공한 선생님들이나 많은 노하우가 있는 선생님들과의 커뮤니티를 통해서 지식을 공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E강사)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핵심역량 개발에 도움이 되기 위한 음악수업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핵심역량과 연계된 수업설계 및 학생들이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수업내용을 구성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학생 자신이 즐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음악에 몰입할 수 있으며 자기 자신에게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가 앞으로 미래인재에게 요구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C교사)

학교 문화예술교육에서의 평가는 면담자들이 가장 관심을 보인 질문이었다. 대부분이 평가의 중요성을 피력하였고 결과중심평가보다는 과정중심평가가 중요하

지만 현재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상황에서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하였다.

“평가의 기본개념은 과정평가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수행평가를 해도 한번만 한단 말이에요... 진보를 많이 한 아이들에게는 높은 점수를 주고 당장 수준이 낮더라도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E교수)

“예술강사들은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 해. 그 과정이 중요한 것보다도 무엇인가 드러나야 해”(A교수)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공간 배분, 결과물에만 집착하는 학교 분위기, 학생들의 수준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학습지도...”(D강사)

“결과중심의 평가는 학생의 능동적 수업참여와 흥미 유발 등을 절대 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C강사)

4. 논의

학교 문화예술교육과 관련이 있는 음악교육 관계자들을 면담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유추할 수 있었다.

첫째, 음악의 역할은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고 음악을 통해서 창의적인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며 삶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음악교육자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결과를 중시하는 예술강사 그룹은 음악활동을 통한 성취감과 자신감에서 학생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힘을 길러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둘째,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에서는 평생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예술강사 그룹은 학생 스스로 선택한 학습이 즐거움과 긍정적 성취까지 연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평생교육의 교육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또한 교사 그룹에서는 심미적 음악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미적 가치와 미적 기준의 교육을 음악교육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었다. 교수 그룹에서는 음악 외적인 내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셋째,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정규 음악수업에서 다루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해 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예산지원의 지속성과 공정성의 부족, 지역적으로 강사수급의 어려움 등의 부정적인 반응도 보였다. 교사 그룹과 예술강사 그룹에서 다양한 전공의 교사 수급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또한 교수 그룹에서는 지속적인 인적, 물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넷째,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음악의 역할과 목적에 언급되었던 행복한 삶과 연계되어 교수 그룹, 교사 그룹, 예술강사 그룹 모두 청소년기에 문

화예술 향유 능력을 계발시킨 사람들은 문화예술의 지속적인 수요층인 동시에 소비층으로 삶 속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향유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섯째, 음악교육에서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교사교육에서는 교사 역량강화를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예술강사 그룹은 예비교사교육과 예술강사 교육에서 음악수업 역량 계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교사 그룹은 교사연수를 통한 재교육의 중요성을 토로했으며 교수 그룹은 이러한 교육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제안하였다. 이와 연계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음악수업은 교사의 역량, 즉 수업능력에 좌우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여섯째,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음악교육 관계자들의 정보 공유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교사 그룹과 예술강사 그룹에서는 강력하게 원하고 있었다. 교수 그룹에서는 정부기관, 학교, 교사 등의 협력 체계 구축을 강조하였다.

일곱째, 면담자들이 가장 관심을 보인 평가에 관한 질문에서는 결과를 중시하는 학교 문화예술교육 실정에서는 음악교과의 특성을 살린 과정중심의 평가가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예술강사 그룹과 교사 그룹에서는 예산 지원에 따른 결과물을 발표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는 과정중심의 평가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학교 행정가나 정부 관계자의 인식의 전환을 바라고 있었다.

V. 결론

이 연구는 음악교육의 관점에서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방향 제시를 위해서 음악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서 FGI를 실시해서 연구결과를 도출하였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교육의 관점에서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구체적인 운영과 실제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 음악교과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목적이나 가치와 연계된 음악교과의 세부 운영 안내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음악교사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다양한 세부전공의 음악교사가 필요한데도 한 명의 음악교사에게 여러 가지 음악능력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들은 예비교사교육의 강화 및 재교육을 위한 교사연수의 지속적인 지원 방안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 문화예술교육은 정규 교과와 비교과가 균형감 있게 이루어져야 한

다. 정규 음악 교과 시간에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기에는 현재의 교육과정 운영 시수가 여유로운 것은 아니다. 외부지원사업의 예술강사들에게 의지하는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운영은 안정적인 교육환경이 되기 어려우므로 정규 교과 시간에서의 문화예술교육 수업 비중이 늘어나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성룡, 이경화 (2012). 문화예술교육사의 역량과 창의성. **창의력교육연구**, 12(3), 5-27.
-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06). **학교 문화예술교육 모두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2005**. 서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김성국, 김동현, 박정환, 정희자 (2010). **학교교육과정에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정책연구과제 2010). 광주: 광주광역시 교육청.
- 김성룡 (2010). 학교문화예술교육 운영 방안. **부산교육**, 330, 40-48.
- 김성봉 (2006).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발전방향에 대한 소고. **백록논총**, 8(2), 5-16.
- 김숙정 (2009). 학교정책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 전망과 과제. **모드니 예술**, 2, 263-266.
- 김영순, 전영은 (2011). 학교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내용 계열성에 관한 연구. **문화예술교육연구**, 6(4), 87-110.
- 김정희 (2006). 학교 문화예술 교육의 필요성과 의의. **경기교육**, 173, 17-21.
- 김정희 (2008). **초등학교 통합형 문화예술교육 모형개발 연구: 교과-예술통합형 문화예술교육 교안 개발 매뉴얼**. 인천: 인천문화재단.
- 김정희, 이지연, 이지연 (2013) 인격 형성과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학교문화예술 교육 방안. **문화예술교육연구**, 8(2), 201-225.
- 김종구 (2006). 학교문화예술 교육의 활성화 방안. **경기교육**, 173, 22-30.
- 민경훈 (2013).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의 현황과 사례 고찰을 통한 역량 제고. **예술교육연구**, 11(2), 13-34.
- 박소연, 박용호 (2016). 학교문화예술교육 효과측정지표 개발 연구. **문화예술교육연구**, 11(2), 27-53.
- 박소연, 홍성만, 임채홍 (2011).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속성에 대한 정책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탐색. **문화예술교육연구**, 6(4), 111-133.
- 박신자 (2010).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한 통합형 문화예술교육의 발전 방향. **디지털디자인학연구**, 10(4), 199-208.
- 박은영 (2006). 학교 문화예술 교육의 기반 조성 방안. **경기교육**, 173, 31-37.
- 백경미 (2015). 공교육 내 문화예술교육 실행자들의 인식: 현황과 과제. **기초조형학연구**, 16(6), 229-238.

- 석문주, 권덕원, 오지향 (2010). 국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현황과 분석-학교 문화예술교육 관점에서. **음악과 민족**, 40, 205-234.
- 윤성원 (2010). 공교육으로서 음악교과교육의 정체성. **음악교육공학**, 10, 1-17.
- 인천문화재단 (2007). **공교육에서 예술교육의 위상과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의 과제 토론회 자료집**. 인천: 인천문화재단.
- 장기범 (2010). 배경과 실천에 기초한 ‘문화예술교육’의 의미와 정체성. **음악교육공학**, 11, 25-40.
- 전두리 (2016). 융복합 교육으로서 학교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의미 탐색: 문학, 음악, 미술, 연극의 연계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106, 93-124.
- 전지영 (2017). 문화예술교육의 오해들-학교문화예술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예술연구**, 16, 265-279.
- 정수기, 이병곤, 박주만, 김옥인, 유수민, 김형태 (2015). **학교 주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수시연구 2015-18). 경기도: 경기도교육연구원.
- 정주연, 신지혜 (2017). 미국의 학교 파트너십을 위한 지역사회 음악교육단체 사례 분석: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음악교육공학**, 30, 95- 115.
- 조희연 (2011). 공교육으로서의 프랑스 예술문화교육 정책 고찰. **예술교육연구**, 9(2), 41-56.
- 최보연, 김병주 (2013).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향성과 과제-영국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 **한국초등교육**, 24(4), 259-280.
- 태진미 (2010). 문화예술교육 정책 실현을 위한 학교음악교육의 개선 과제. **예술교육연구**, 8(2), 65-79.
- 한국교원대 산학협력단 (2011). **2011 문화예술교육 교육표준 개발 연구-음악** (KACES-1140-R013). 서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3). **국가별 학교문화예술교육정책 자료집**(KACES-1251-C006). 서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_____ (2016). **2016 학교문화예술교육실태조사**(KACES-1650-R002). 서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_____ (2016). **학교문화예술교육 정책토론회 자료집**. 서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_____ (2018).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한국-영국 사례조사 보고서**(KACES-1740-R012). 서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 (2004).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기초연구**(문화예술교육 04-03). 서울: 문화관광부.
- 한국예술교육학회 (2017). **문화예술교육개론**. 서울: 레인보우북스.
- 황정현 (2010).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와 바람직한 학교문화예술교육. **부산교육**, 330, 49-61.
- Barresi, A. L. (1994). Arts education policy in the school culture. *Art Education Policy Review*, 95(6), 23-31.
- Davis, J. H. (2008). Why our schools need the arts, 백경미(역) (2013), **왜 학교는 예술이 필요한가**. 파주: 열린책들.
- EACEA (2009). *Arts and Cultural Education at School in Europe: United Kingdom* (England, Wales and Northern Ireland) 2007/08. European Audiovisual and Cultural Executive Agency.
- _____ (2009). *Arts and cultural education at school in Europe*. European Commission, EACEA.
- Harland, J., Kinder, K., Lord, P., Slott, A., Schagen, I. & Haynes, J. (2000). *Arts education in secondary schools: effects and effectiveness*. London: The arts council of England.
- KACES (2007). *Turning Vision into Reality - Arts & Culture Education Policy in Korea* (English version). Seoul: 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 Mayesky, M. (2015). *Creative activities for young children*. Stamford, CT: Cengage Learning.

ABSTRACT

**A Direction of Arts and Cultural Education at
School based on the Music Education**

Kim, Misoo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direction of arts and cultural education in school from the viewpoint of music education in order to raise the core competence emphasized in 2015 revised music curriculum . In order to set the direction, FGI was performed to professors of music education department, music teachers, arts instructors - who are in charge of music education in school culture and arts educa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from the viewpoint of music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provide guidelines on the concrete operation and practice of school arts and cultural education.

Second, it should be strengthen the capacity of music teachers who are in charge of school arts and cultural education.

Third, school arts and cultural education should be balanced with regular subjects.

Key words: arts and cultural education, music education, arts and cultural education at school

투고일: 8월 31일, 심사(수정): 10월 5일(10월 8일), 게재확정일: 10월 26일